* CSS(Cascade Style Sheet)
  + Html로 Mark-Up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보다 보기 좋은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주로 활용
* 스타일시트 삽입 방식
  + **인라인 방식**
    - **<h1 style=”color: blue”>인라인 방식</h1>**
    - Html 문서에서 사용되는 시작 태그 내에 style 속성으로 직접 삽입
    -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음
  + **내부 방식**
    - **<style>h1{color: blue; background: red;}</style>**
    - Html 문서 중 head 태그 내에 **<style>** 태그를 선언하고 그 안에 CSS를 적용
    - 태그에 직접 스타일시트 속성을 주입하는 인라인 방식 다음으로 우선 순위가 높음
  + **외부 방식**
    - **<link rel=”stylesheet” href=”style.css”>**
    - Html 태그에 직접 스타일시트 속성을 주입시키는 내부 방식 다음으로 3번째로 우선 순위가 높음
    - Html 파일과 분리된 별도의 폴더를 생성 후 그 별도의 폴더에 CSS 파일을 생성 후 스타일 속성들을 작성 후 다시 **<link>** 태그를 활용하여 다시 html 문서에 링크를 걸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형태이다.
    - 실질적으로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.
    - 이유는 간단한 html 파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html 태그에 직접 스타일시트 속성을 주입하는 인라인 방식이나 html 내의 **<head>** 태그 안에 사용하는 **<style>** 태그 내에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웹 개발 시 그 수많은 html 태그들에게 일괄적으로 스타일시트도 적용시키고 개발 소스 길이도 길어지면 가독성도 저하 되어 추후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므로 개발 소스의 길이도 효율적으로 줄여주고 더 나아가 파일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서 실제 개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선호하는 방식이다
  + **Import 방식**
    - **Ex) <style>@import url(style.css);</style>**
    - 내부 방식과 유사하게 html 문서 내 **<head>** 태그 안에 작성하는 방식
    - Html 파일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CSS 파일을 import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    - 가장 최 하위 순위에 속 한다.
* CSS 색상을 적용시키는 방법
  + **1. 영문명 색상 이름으로 적용시키는 방법**
    - **Ex) h1 {color: blue}**
  + **16진수 유니코드로 색상을 적용시키는 방법**
    - **Ex) h1 {color: #aa0000}**
    - **# 뒤로 각각 두 자리씩 빨강, 초록, 파랑 색상 순이다.**
    - **0~9, A~F 순이다**
    - **실제 웹 개발 환경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**
  + **10진수 RGB 값으로 적용시키는 방법**
    - **Ex) rgb(red, green, blue)**
    - **10진수 RGB에 대한 값으로 삽입**
    - **또한 N%(0 ~ 100%)로도 값을 삽입 할 수 있음**
    - **투명도를 0(min) ~ 1(max) 범위 내(소수점 단위)에서 지정 할 수 있다**
* **Hsla(hue(색상), saturation(채도), light(밝기), alpha(투명도))**
  + **최근 CSS3 들어 새롭게 추가 된 기능이나 아직은 사용 빈도가 많은 편은 아니다.**